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시리즈 8.

“절망의 감옥을 여는 소망의 영성”

(사도행전 12장 1~12절)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차이는 육체적인 조건보다 삶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소망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필요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영성입니다.

I. 사면초가의 감옥과 초대교회의 위기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가 심각한 박해를 받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당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어 베드로까지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군인들의 철저한 감시와 쇠사슬에 묶인 채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복음의 미래마저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가정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절망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문이 닫혔다고 하늘의 문까지 닫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절망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II. 간절한 기도의 영성

첫째, 절망의 감옥을 여는 소망의 영성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한 기도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위기를 원망과 불평의 기회로 삼지 않고 기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III.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

둘째, 절망의 감옥을 여는 소망의 영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깨우시고 일어나서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 과정에서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상황을 이해한 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먼저 순종했습니다.

천로역정에서 절망의 감옥에 갇힌 크리스천은 자신에게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옥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열쇠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IV.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영성

셋째, 절망의 감옥을 여는 소망의 영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처형을 앞둔 전날 밤에도 쇠사슬에 묶인 채 평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헤롯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똑같이 교회가 기도했는데 왜 결과가 달랐을까요? 이것이 기독교적 소망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도 하나님의 승리였고, 베드로의 구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조차 그의 귀환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응답을 기다리면서도 불안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